

5강 / 한 몸 공동체

I. 오늘의 포인트

1. 교회가 한 몸 공동체인가 하는 것과 한 몸 공동체의 특징을 살펴본다.
2. 한 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II. 고린도 교회의 네 번째 해결 방법: 한 몸 공동체임을 기억하라.

1.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한 몸이다.“한 몸”이다. 최초 가정 공동체를 만들 때도 성경이 사용한 단어는 “한 몸”이다.(창2장)

1) 둘 이상 모인 곳이 과연 한 몸이 되는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한 몸이라고 정의했다.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도 삶에서 둘 이상 모인 공동체가 한 몸이 될 수 모습을 찾기란 쉽지 않다.

2) 한 몸의 의미

① 하나, 하나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 하나가 모여 총합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전체가 되었을 때에야 한 몸이 된다. 따로 떼어 놓고선 어떤 것도 몸이라고 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 하나를 모았다고 해서 몸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일반 공동체의 특징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② 한 몸은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 또는 분열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한 몸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몸의 지체가 분리가 되면 단순히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능과 삶을 살지 못한다. 즉 분열되는 것은 단순히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손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가정을 한 몸이라고 했다. 그런데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자녀가 자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단순히 아버지로 인해, 자녀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인격에, 삶에 손상을 입는 것이다. 얼마나 큰 손상을 입느냐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이다. 실제 부모로 인해 손상을 입은 자녀들이 큰 인격의 손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③ 한 몸 안에는 눈, 코, 입 등 다양한 지체가 있다.

건강한 몸은 서로 다른 기능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이다.(25절) 서로가 서로의 주

장을 펼치지 않는다. 모두 다 몸을 위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이다.

④ 한 몸은 약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23절)

몸 중에 약한 곳이 있다면 일반 사람들이 꾸민다. 더 예쁘게 보이려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한다. 가려도 가릴 수 없으면 예쁘게 만들어(최근에는 성형) 돋보이도록 하게 한다. 실제 가정을 보면 약한 자녀가 있으면 더 많이 신경을 쓴다.

⑤ 한 몸은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받고, 고통을 받아도 같이 받는다.(26절)

몸에 상처가 나면 몸 전체가 아프다. 사실 발가락에 상처가 나면 발가락만 아프면 되는데 이상하게 몸 전체가 아프다. 걷는 것조차 마음대로 안 된다. 이는 한 몸은 아프면 모두 아프고, 기쁘면 모두가 기쁘다는 말이다.

2. 한 몸 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부족한 고린도 교회

이런 공동체가 있을까? 고린도교회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교회였다. 교회 공동체 속에 온 성도들이 마음이 같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힘을 합해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회는 4개의 당파가 있었다. 어떤 이는 바울, 어떤 이는 베드로, 어떤 이는 아볼로, 어떤 이는 그리스도 파에 속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한 교회 안에 지도자 그룹, 즉 세력이 4개로 나누어 있다는 것은 많은 장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매우 위태로운 교회이다. 실제 이 교회는 대부분 충돌이 많이 일어났다. 이 때 고통 받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성도들이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현상 속에 소송 문제, 이혼문제, 결혼문제, 우상제물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일어났다. 심지어 음식을 먹을 때에 자신들과 맞는 사람들끼리 음식을 먹고 있었다.

교회 공동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운 곳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

바울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공동체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본다. 바울이 생각한 공동체는 한 몸 공동체였다.

3. 그렇다면 과연 한 몸 공동체는 가능한가? 그 길은 있는가?

1)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능하냐는 질문은 믿음 없는 생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분명 하나님은 한 몸 공동체가 되도록 하실 수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실제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한 몸 공동체이다. 일어날 수 없음에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단순히 정신을 추구하는 것으로 말하는 이도 있고, 그냥 교회는 독특한 새로운 공동체라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아무런 의식 없이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바울은 한 몸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둘 이상 모여 살아가는 교회와 가정이 한 몸이 된다고 보고 있을까?

2) 한 몸 공동체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랑

바울은 한 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는 다 지체인 것을 말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한다.

왜 더 큰 은사를 말했을까?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은 잘 아는 "사랑장"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은 현실적으로 한 몸이 될 수 있는 길이 인간의 삶에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방법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한 몸이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사랑"이라고 본 것이다. 오직 "사랑"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한 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으로 아파하고, 거짓으로 사랑하고, 거짓으로 용서하고, 거짓으로 말한다. 입으로만 한 몸이지 실제로는 다른 몸이다. 한 교회, 한 가정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사랑이 있는 곳엔 놀랍게 한 몸이 된다.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된다. 그 사람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고, 그 사람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된다. 그 사람으로 인해 나는 기뻐하고, 나로 인해 그 사람이 기뻐한다. 사랑만이 바로 서로 다른 사람,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것이다.

① 사랑은 은사이다.

은사는 선물(Gift)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다. 인간에게 없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받아야 하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한 몸이 안 된다. 한 몸 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을 때이다.

바울도 현실적으로 죄인이 된 인간의 공동체가 "한 몸"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죄인이 살아가는 모든 곳은 "이기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모든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가 바로 철저한 인간적 사랑에 근거해서 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동체 하면 "둘 이상이 모여 살아가는 어떤 곳"으로 말한다. 그

런데 자세히 보면 자신의 목적과 다를 때는 언제든지 분열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동체의 특징이다. 즉 자신의 이익과 목적이 다를 때,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에 부합되지 않을 때 인간은 언제든지 공동체를 깨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

② 사랑장의 특징

첫째, 사랑 없는 행동은 결국 아무 것도 아니다. 어떤 것도 남지 않는다.

둘째, 사랑은 부분적으로 보던 것을 버리게 하고 온전한 것을 보게 한다. 사람은 모두 부분적으로 본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의 진짜를 보게 한다.

셋째, 희미하던 것을 정확하게 보게 한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사랑이 임할 때) 얼굴과 얼굴의 대하여 볼 것이다.

3) 한 몸 공동체가 구해야 하는 것: 사랑

한 몸 공동체는 우리가 만들 수 없다. 만들고 싶어도 죄인된 인간은 만들어 갈 수 없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 만드는 유일한 길을 성경은 제시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처음도 마지막도 사랑을 구해야 할 것이다. 그때 진짜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다.

배울 점)

1. 한 몸 공동체 듣기만 해도 가슴 뛰게 한다. 사실 한 몸 공동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이 공동체를 꿈꾸고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한다. 이것을 이상이라고 해도 좋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순간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깨닫게 된다.

2. 오늘도 교회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한다. 바로 사랑이다. 인간의 사랑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살아날 것이다. 당파도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